경부고속철도 '삼정교' ILM공법 시공 완료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교통 차단 없이 시공 완료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하는 경부고속철도 삼정교 강 Box 구조물을 ILM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 밀어내기 공법)으로 4월 6일 안전하게 시공 완료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많아(3만5000대/일) 차량통제가 필요한 강 Box를 거치하는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이 어려워, 철도교량 시공 시 차량통제가 전혀 없도록 교량 상부에서 강 Box 부재를 연결(7개)하여 밀어넣는 ILM공법을 적용했다.

장봉희 건설/기술처장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의 안전시공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올해 말까지 궤도 전기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거쳐 경부고속철도 전용선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

금호 지하차도 개통으로 밀양시민 70년 숙원사업 해소

– 경부선 상동~밀양역간 금호 지하차도 개통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와 밀양시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하부를 횡단하는 금호 지하차도 개량사업을 완공하고 4월 4일 개통했다.

금호지하차도 개량사업은 밀양시와 공단이 2011년 1월 협약 체결하여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2012년 6월에 착공, 폭 3.2m, 통과높이 2.8m를 → 폭 6.5m, 높이 4.5m로 확장하여 1년 10개월 만에 개통했다.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지하차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량 전〉

〈개량 후〉

• 금호 지하차도 •

중앙선 단양역사 신축, 2015년 말 완공

– 역사 이용 편의시설 대폭 확대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사업의 일환으로 단양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 형상인 도담삼봉을 이미지화하여 오는 5월부터 신축한다.

새로 신축되는 단양역사는 에스컬레이터 등 여객 승강설비를 구비한 전용통로를 만들고, 버스 · 택시 승하차장 및 역광장을 확장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앙선 단양역은 1985년도에 건축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대합실 등 여객시설이 협소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단양역사 건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품격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주~강릉 철도, 강릉시구간 토지보상 설명회 개최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원주~강릉 철도의 강릉시구간 노선의 건설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강릉시 담산동, 박월동, 구정면 학산리와 여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설명회를 1일 2회(오전 오후), 총 4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와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민원을 예방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답보 상태였던 강릉시 구간의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전 구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올해는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총 공정률 35%를 달성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박동수 기자〉

호남본부, 대학생 초청 철도건설 현장 실습교육 지원

– 군산대 토목공학과 학생 100여 명 익산시 철도고가와 연약지반 시공현장 방문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3월 28일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창경 학과장 등 10명의 교수와 재학생 100여 명을 초청하여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철도고가 및 연약지반 시공현장을 찾아 견학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익산~대야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함께 익산시 오산면의 신평화고가(기초말뚝 SDA공법 공사현장)와 인근의 연약지반처리(GCP+PBD공법) 시공현장을 찾아, 철도에서 사용하는 주요 토목공법을 직접 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이 실무에 적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업무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군산(14.3km)을 잇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16%이며, 사업이 완공되면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 서해선의 여객 및 화물 연계 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서해안 물류 수송체계의 확립으로 물류비 절감 및 철도 수송체계의 변화가 기대된다.

충청본부, 대전 에덴 노인요양원과 사회 공헌활동 협약 체결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4월 9일 대전시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에덴노인요양원(원장 김영일)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KR봉사단은 협약체결 후, 에덴노인요양원 인근에 소나무 150여 그루를 심고, 요양원 주변 청소를 시행하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본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원을 찾아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정기후원금 기부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외로운 노인들의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와 자원봉사 협약 체결

– 대전 동구지역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활동 개시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3월 25일 대전 동구 가양로에 위치한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원장 신종근)와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본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봉사활동 협조, 정기후원금 기부,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발전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신의 · 성실을 바탕으로 나눔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협약체결 후 KR봉사단은 복지센터 내 공부방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벽면 페인트칠 및 책상 정리정돈,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생일을 맞이한 아동 12명에게 생일축하 및 간식 제공과 더불어 도서상품권을 전달했다.

본부 관계자는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호남본부, 청렴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 직원 20여 명은 4월 11일 순천역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철도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부는 지난 3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내부결의를 다진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튼튼한 철도건설! 청렴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철도 이용객에게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코레일 전남본부 직원들과 함께 철도건널목 통행요령 안내와 전차선 감전사고 예방 등 안전계도 전단지와 '철도안전행동요령'이 새겨진 생활용품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하는 등 철도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본부 한상우 기자〉